



忠湛(869~940)의 생애와 활동

Choongdam(869~940)'s Life and Activities

| | |
|--------------------|---|
| 저자 (Authors) | 정동락 Jung, Dong-rak |
| 출처 (Source) | 신라사학보 , (18), 2010.4, 191-229 (39 pages) SILLASAHAKPO , (18), 2010.4, 191-229 (39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39 |
| APA Style | 정동락 (2010). 忠湛(869~940)의 생애와 활동. 신라사학보, (18), 191-229.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9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忠湛(869~940)의 생애와 활동

정 동 략*

- | | |
|----------------------------|----------------------------|
| I. 머리말 | IV. 태조왕건과의 결연과 興法寺 |
| II. 출가와 수계 | 주석 |
| III. 審希 문하에서의 수학과 입당 유학 | V. 태조왕건의 <충담비> 찬술과 그 의미 |
| | VI. 맺음말 |

【국문초록】

忠湛은 869년(경문왕 9)년 武州에서 태어났다. 그는 880년(헌강왕 6) 부친과 친분이 있던 長純선사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889년(진성여왕 3) 무주 靈神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武州의 松溪禪院에서 머물던 審希(855~923)를 찾아가 수학하였다. 892년(진성여왕 6) 경 甄萱의 무주 점령으로 인한

* 대가야박물관 학예사

주요 논저 :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新羅史學報》 14, 2008 :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于勒의 생애와 활동 -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42, 2009 :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외 다수

전란을 피해 심희와 함께 雪岳으로 가서 그곳에서 심인을 전해 받았던 듯하다. 그리고 890년대 중·후반경 입당 유학하여 石頭계인 雲蓋志元의 법을 이었다.

충담은 918년 6월에 귀국하여 鳳林寺의 심희를 찾았다. 918년 12월 심희는 경명왕의 초빙으로 경주로 가서 國師로 책봉되었다. 이후 봉림사에 머물던 충담은 920년 10월 견훤의 김해 침공을 피해 개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921년 3월경 태조로부터 王師에 임명되었다. 충담은 심희와 달리 고려 태조와 결연하였다.

王建은 원주의 興法寺를 중수하고 충담이 머물도록 하였다. 원주지역은 남한강변의 요충지로 왕건 즉위 이후 친궁예세력들의 비협조로 한동안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흥법사에 주석한 충담은 자신의 교화력과 문인 및 단월세력들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반왕건적인 성향의 세력들을 친고려적으로 유도하였다.

충담은 940년(태조 23) 7월 興法寺에서 입적하였다. <충담비>의 건립은 스승인 심희와 대비된다. <심희비>는 신라 경명왕이 비문을 찬술하고 신라 왕실의 지원으로 건립되었다. 반면 <충담비>는 태조왕건이 직접 비문을 찬술하였다. 태조의 <충담비> 찬술은 開泰寺의 <華嚴法會疏文>과 함께 고려 불교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羅末麗初, 鳳林山門, 禪宗, 忠湛, 審希, 王建

I. 머리말

나말려초는 한국 선종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중국에서 유행하던 남종선 사상이 전래되어 한국 선종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다. 특히, 선종은 나말려초라는 시대적 격동기의 사상기반을 제공해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기 활동했던 30여명 이상의 선승 비문이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선종 9산문과 그에 속한 선승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¹⁾

玄旻 - 審希(853~923)로 이어지는 鳳林山門에 대해서도 그간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봉림산문의 성립과 전개, 현욱·심희·璨幽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 하지만 眞空忠湛(869~94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봉림산문,³⁾ 법계,⁴⁾ 김해 지역에서 활동한 선승⁵⁾ 등을 다루면서 소개되었다. 또 충담의 부도와 비문 건립과정,⁶⁾ 太祖王建과의 결연,⁷⁾ 가지산문 道義계와의 관련성과 교선융합적인 사상 경향,⁸⁾ 원주 혹은 남한강 주변 불교계의 양상을 살피면서 언급되었다.⁹⁾

- 1) 나말려초 선종사에 대한 최근의 성과로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등이 있다.
- 2) 봉림산문과 심희, 현욱에 대한 연구 성과는 曹凡煥, <新羅 下代 審希禪師와 鳳林山門>, 앞의 책, 2008 ;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旻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4, 2008 참조.
- 3)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4) 김영미, <나말려초 禪師들의 계보 인식> 《역사와 현실》 56, 2005.
- 5)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6)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7) 金杜珍, <王建的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 4, 1981 ; 김두진, 앞의 책, 2006 ; 徐珍教, <高麗 太祖의 禪僧包攝과 住持派遣>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 출판부, 1996.
- 8) 김두진, 앞의 책, 2007 ; 정동락, <元寂 道義의 生涯와 禪思想>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曹凡煥,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충담은 慶猷(871~921)와 더불어 태조의 王師를 지낸 선승이었다. 하지만 경유가 태조 즉위 초에 입적하므로 태조의 왕사는 충담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태조 때에는 國師가 책봉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불교계에서 충담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나말려초 비문이 전하는 선승들 중 국왕이 직접 찬술한 경우는 심희와 충담 뿐이었다. 심희는 신라의 경명왕, 충담은 고려의 태조가 비문을 친제하였다. 공교롭게도 두 선승은 봉림산문 소속으로 사제지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말려초라는 격동기에 정치적 행보를 서로 달리하였다. 심희는 신라의 國師였고, 충담은 고려의 王師였다. 이점은 동일한 산문의 선승일지라도 시대 인식과 정치적 지향 등에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충담비>는 태조가 찬한 유일한 ‘선승비’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따라서 나말려초 선종불교계의 동향과 태조왕건과 불교계와의 관계 등을 심도 깊게 이해기 위해 충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충담의 생애를 삶의 궤적에 따라 추적해 본다. 출가와 수계, 심희 문하에서의 수학과 입당유학, 귀국과 태조왕건과의 결연, 입적 후 비문 찬술과 건립의 의미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담의 삶을 재구성하고, 태조왕건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 9) 이인재,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2001; 李仁在,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敎界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31, 2003; 김혜완,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 2004; 이인재, <고려 초기 원주 지방의 역사와 문화> 《韓國思想과 文化》 32, 2006;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표-1〉 충담의 생애와 활동¹⁰⁾

| 시기 | 연도 | 활동 내용 |
|---------------------------|--------------------------------|---|
| 출가 수학 | 869년(경문왕 9) | 1월 1일 출생 |
| | 880년(헌강왕 6, 12세) 전후 | 양친을 여의고 長純선사 문하에 출가. |
| | 889년(진성여왕 3, 21세) 889~892년 | 武州 靈神寺에서 구족계 수계. 武州 松溪禪院에서 審希에게 수학. |
| | 892~895년(27세) 전후 | 심희와 함께 雪岳(億聖寺?)에 머뭄. |
| 입당 유학 | 890년대 중·후반 (진성여왕 9, 27세 전후) | 입당유학. 雲蓋禪宇 淨圓志元에게 수학. |
| 교화 활동 및 단월 세력 | 918년(경명왕 2, 50세) | 6월 귀국. 鳳林寺의 審希를 찾아 문인들을 지도. |
| | 921년(경명왕 5, 태조 4, 53세) 3월 경 | 金海를 떠나 開京으로 가서 太祖王建 과 대면, 王師로 임명됨. |
| | 922년(태조 5, 54세) 경 | 태조가 원주 興法寺를 중수하고 주석케 함. |
| 입적 및 입비 | 940년(태조 23, 72세) | 7월 입적. 향년 72, 법랍 51. 왕건이 비문 親製, 탑과 비를 興法寺에 건립. 시호는 眞空, 탑명은 □□. |

II. 출가와 수계

충담에 대해서는 <高麗國 原州 靈鳳山 興法寺 王師 眞空之塔>(이하 <충담비>)¹¹⁾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충담의 가계와 신분 등은

10) 이 표는 기왕의 성과(안영근,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79쪽)를 참조하여 새롭게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1) <충담비>는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와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등에 실려 있으며, 비문이 교감·역주되었다(李智冠, <原州 興法寺 眞空大師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

다음과 같이 전한다.

- A. 대사의 범휘는 忠湛이요 속성은 金씨이다. 선대는 鷄林의 冠族으로 우리나라(兔郡)의 宗枝였다. □섬에서 번영을 나누었으며, 불문(桑津)에 의탁하여 파를 달리하였다. … 은둔처에 숨어 도를 즐기면서 일찍이 莊子와 列子를 공부하였고, 숨어 지내는 은사들과 시조를 읊조리며 늘 속세의 명예를 피하였다. … 함통 10년(869, 경문왕 9) 정월 1일에 태어났다(<충담비>).

충담은 869년(경문왕 9) 1월 1일에 태어났다. 속성은 金씨로 鷄林의 冠族이자 兔郡의 宗枝였다. 그의 선대(祖와 父)는 관직에 진출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벼슬을 구하지 않고 은둔적인 삶을 살았다. 특히 은둔처에 숨어 도를 즐기고, 隱者들과 교류했다는 것으로 보아, 왕경이 아닌 지방으로 낙향한 듯하다. 즉, 충담은 지방으로 낙향한 진골귀족 출신이었다.¹²⁾ 하지만 그가 출생한 곳이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그의 집안에는 “불문(桑津)에 의탁했다”거나, “파를 달리했다”고 하여 승려가 된 인물이 여럿 있었고, 교종은 물론 선종계로도 진출했던 듯하다. 충담의 선대는 莊子와 列子 등 도교사상에도 심취한 것으로

僧碑文》高麗篇1, 伽山文庫, 1994 ; 안영근,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下, 혜안,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한국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원문과 해석(허홍식 판독, 이지관 역주본)을 제공하고 있다. <충담비>는 태조왕건이 직접 찬하였으며, 비문은 崔光胤이 唐太宗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940년 충담의 입적 후 곧바로 원주 흥법사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半折碑’로 불리듯이 결락이 심해 충담의 생애를 재구성하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안영근의 역주본을 주로 참조하였다.

- 12)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1975, 7쪽 ; 崔柄憲, 앞의 논문, 1978, 424~425쪽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122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142~143쪽 및 433쪽 ; 김혜완, 앞의 논문, 2004, 14쪽 ; 김혜완, 앞의 논문, 2008, 277쪽.

전한다. 즉, 충담은 불교(교·선)는 물론 유교와 도교 등에 두루 관심을 가진 융합사상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B. 대학(槐市)에서 경서를 독파하고 과거 시험장(杏園)에서 글 쓰라는 명을 받았다. 일찍이 양친이 관상을 보는 사람을 맞이하여 상을 보자, “12세가 되면 봉황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측량하기 어렵다가, 20세 때에는 (결락)할 것이다”고 하였다. (결락) 부모(怙恃)를 여의고 한탄하며 허둥지둥하였다. 마침 長純禪師는 속세를 제도하는 인연을 닦는 스승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佛門의 벗이었다. 대사는 長老(장순선사)를 따라 거처를 얻고 (결락) 속세를 떠나 승려의 위계를 얻게 되었다(<충담비>).

충담의 부모는 비록 은둔적인 성향을 지녔지만, 자식은 관직에 진출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담은 어린 시절 유교경전을 읽고 관직에 진출하기 위한 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양친을 여의게 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양친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정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그의 집안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신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¹³⁾ 출가한 나이는 전하지 않지만, 관상자의 말을 참조한다면 12세 경인 880년(헌강왕 6)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충담은 長純禪師의 문하에서 출가하였다. 장순은 돌아가신 부친의 佛門의 벗이었다고 한다. 아마, 정쟁으로 부모를 여윈 충담을 불가로 인도했던 듯하다. 충담은 장순선사의 도움을 받아 무주 인근의 선종 사원으로 출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장순선사의 문하에서 10

13) 도헌은 “9살에 아버지를 여의로 너무 슬퍼하여 거의 웨멸할 지경”이었고, 진공대사는 “8살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애도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추념”했다. 도헌과 진공은 아마도 부친이 정쟁에 정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曹凡煥, 앞의 책, 2008, 188쪽 ;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10쪽).

여년 가까이 수학하였다. 장순선사의 출신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잘 알 수 없다. 다만, 그에게 출가한 충담이 玄昱(787~868)의 제자인 審希의 문하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장순선사는 현욱 문하의 선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무주에는 迦智山門(體澄, 黃壑蘭若·寶林寺), 桐裏山門(慧徹, 雙峰寺·太安寺), 獅子山門(道允, 쌍봉사) 등 선종 산문들이 번창하고 있었다.¹⁴⁾ 따라서 장순선사는 이들 산문의 선승들과 교류하였을 것이다. 특히, 충담이 이후 스승인 審希와 함께 雪岳을 찾은 것으로 보아, 장순은 가지산문의 선승과도 밀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다가 21세 때인 889년(진성여왕 3) 武州 靈神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관상자가 말한 20세 전후의 중요한 일은 구족계를 받은 것의 의미만 듯하다.

C. 禪林에 몸을 담고 … 龍紀 원년(889, 진성여왕 3) 武州(광주) 靈神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윽고 相部를 익히고 계율(毗尼)을 정밀히 탐구하였다(<충담비>).

충담이 수계한 영신사는 무주의 관단사원이었다.¹⁶⁾ 영신사는 지리산에 위치한 사원으로,¹⁷⁾ 진성여왕이 890년대 중반경 折中에게 無量寺와 함께 이 곳에 주지토록 요청하였다.¹⁸⁾ 그로 보아 영신사는 신라 왕실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당시 대부분의 선승들

14) 曹凡煥, 앞의 책, 2008, 16~19쪽, 62~69쪽, 166~170쪽.

15) 한편, 충담이 相部(법상종)와 계율을 중시한 것은 동리산문의 慧徹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김두진, 앞의 책, 2007, 327~328쪽) 장순선사가 동리산문과도 교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6) 韓基次,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2, 1988, 50쪽.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晋州牧 佛宇조.

18) 朴貞柱,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震檀學報》 77, 1994, 12쪽.

은 9州에 분포한 계단사원에서 수계하였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충담이 신라왕실과 결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수계 후 충담은 相部²⁰⁾와 계율을 탐구하였다. 그는 禪 수행과 함께 법상종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는 무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의 분위기가 작용한 듯하다. 우선, 해철을 비롯한 允多, 道誑, 慶甫 등 동리산문의 선승들은 법상종 사상에 대해 포용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²¹⁾ 그와 더불어 당시 舊백제지역에서는 眞表의 법상종과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진표계 법상종은 참회와 占察法이라는 실천행을 바탕으로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하였고, 戒의 엄수가 중시되었다.²²⁾ 김제의 金山寺는 진표가 출가 교화한 곳이고, 甄萱이 神劍에 의해 유폐된 곳이므로 견훤과도 밀접하였다.²³⁾ 惠居國사(899~974)²⁴⁾는 917년 금산사의 義靜율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922년 여름 彌勒寺의 開塔을 계기로 열린 禪雲山(寺)의 選佛場에 참석하여 설법하였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로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았다. 견훤은 미륵사의 탑을 중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운사에 승과(?)를 개최했던 듯하다. 따라서 견훤은 금산사, 미륵사, 선운사 등을 지원하면서 미륵신앙을 포섭하고 있었다.²⁵⁾ 이처럼

19) 韓基汶, 앞의 논문, 1988, 50쪽.

20) 相部는 유식이나 법상종(김두진, 앞의 책, 2007, 200쪽; 김영미, 앞의 논문, 2005, 73쪽) 혹은 相部律로 四分律 3과 중의 하나로 율종의 일파라고도 한다(안영근, 앞의 논문, 1996, 115쪽 주 48); 김혜완, 앞의 논문, 2004, 14쪽 주 42) 참조).

21) 김두진, 앞의 책, 2007, 330~331쪽.

22)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1984, 147~148쪽.

23) 《삼국사기》 권50, 甄萱전.

24) 許興植, <葛陽寺 惠居國師碑>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25) 허홍식, 앞의 책, 1986, 586쪽 및 591쪽; 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신서원, 1994, 77~78쪽; 조인성, 《태

무주 일대에는 진표계 미륵신앙의 전통이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충담이 선승이면서 법상종과 계율을 중시한 것은 동리산문과 진표계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한다.

- D. 대사는 雪山에서 成道하고 煙洞에서 마음을 깨달았다. 18대의 조종을 전하였고 삼천 년의 禪教를 이었다. ... 가히 인도의 풍모를 드러내 밝히었고, 천축의 법을 널리 편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충담비>).

충담이 “雪山에서 성도하고 煙洞에서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가 道義의 가지산문과 얽힌 사실을 알려 준다.²⁶⁾ 그리고 “18대의 조종을 전하였고 삼천년의 禪教를 이었다”고 한다. 그가 교선을 함께 아우르려는 사상경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유식과 계율 그리고 화엄도 포용하였을 듯하다. 이처럼 충담은 선과 교를 함께 수행하려는 융합적인 선풍을 지니고 있었다.²⁷⁾ 더불어 충담은 풍수지리설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²⁸⁾

Ⅲ. 審希 문하에서의 수학과 입당유학

충담은 수계 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학한 다음 중국으로 입당하였다. 그 사이 심희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그의 법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의 궁예 정권》, 푸른역사, 2007, 254~255쪽.

26) 김두진, 앞의 책, 2007, 200쪽 ; 정동락, 앞의 논문, 2003, 44쪽 ; 曹凡煥, 앞의 논문, 2009, 232쪽.

27) 김두진, 앞의 책, 2007, 200~201쪽.

28) 김두진은 충담이 “지역적인 특성이나 법상종과의 연관 등으로 보아 풍수지리설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김두진, 앞의 책, 2007, 200쪽).

- E-1. (결락)를 만들고 (결락)한 도를 논하였다. 學人에게 말하기를 “낙숫물이 돌을 뚫듯 한 마음을 가지면 쇠도 끊을 수 있는 것이며, 부지런히 닦고 닦는다면 병속의 물처럼 쉽게 쏟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조금씩 쌓아 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종종걸음을 더욱 빨리 하였다. 짧은 순간 學海의 공을 이루기 위해 영원토록 ... 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를 만들고 (결락)釋子라 (결락) 함부로 禪僧이라 하였다. 이 무렵 폐허마다 뼈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다른 산은 고요했으나, 어찌 이 곳을 피할 방략이 없었겠는가. 이 곳이 위험한 곳이라 하여 마침내 이 산에 머물고자 하는 생각을 끊어 버렸다. (결락) 배를 같이 타고 가서 중국에 도달하였다(<충담비>).
2. 文德 초년(888)부터 乾寧 말년(898) 사이에 먼저 松溪선원에 자리를 잡자 학인들이 빗방울처럼 모여 들었으며, 잠시 雪岳에 머물자 禪客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 대사는 전란을 피하기 위하여 운수 행각을 떠나서 溟州에 가서 발을 멈추고 山寺에 의탁하였다(<심회비>).

앞의 D에서 충담이 “雪山에서 成道했다”는 것으로 보아, 입당 전 무주를 떠나 雪岳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런데 스승인 심회도 광주 즉 무주의 松溪禪院을 떠나 설악에 주석했다. 심회는 文德초인 888년부터 송계선원에 머물렀다. 892년경에는 제자인 璨幽(869~977)가 찾아와 허락을 받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이즈음에 송계선원을 떠나 설악을 찾았는데, 億聖寺일 가능성이 높다.³⁰⁾ 심회가 설악에 머물자 禪客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하지만 심회는 다시 명주의 黑巖禪院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洪俊을 만났다. 그 시기는 대략

29) 김두진, 앞의 책, 2007, 200~201쪽 ; 정동락, 앞의 논문, 2003, 44~45쪽 ; 曹凡煥, 앞의 논문, 2009, 231~232쪽.

30) 김용선, <玄扈·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24~125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200쪽 ; 曹凡煥, 앞의 논문, 2009, 231~232쪽.

890년대 중·후반 경이었다.³¹⁾ 이처럼 심희는 892년경 송계선원을 떠나 설악으로 갔다가, 3~4년 뒤인 890년대 중·후반경 명주로 옮겼다. 여기서 심희와 충담의 행적이 겹쳐진다.

충담은 무주 영신사를 떠나 유력하면서 선승을 만나 도를 논한 듯하다. 또, 그 선승은 학인들에게 “낙수물이 돌을 뚫듯 한 마음을 가지만 쇠도 끊을 수 있고, 부지런히 닦는다면 병속의 물처럼 쉽게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인물이 심희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충담은 889년 수계 후 송계선원에서 심희를 만나 수학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충담비>에 “이 무렵 폐허마다 뼈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송계선원에서 전란을 만나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런데 심희가 892년 경 송계선원을 떠난 것도 전란(烟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란은 889년 전국적인 농민항쟁을 계기로 등장한 甄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환은 889년(진성여왕 3) 농민항쟁 이후 경주 서남쪽 州縣들의 호응을 받아 군사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892년(진성여왕 6) 무진주(광주)를 점령하였으며, 900년(효공왕 4)에 完山州로 옮겨 後百濟王을 칭하고 設官分職하였다.³²⁾ 충담과 심희는 송계선원에 머물다가, 892년 경 무주에 전환의 세력이 진군하자 그곳을 떠나 설악을 찾았던 것이다.³³⁾ 굳이 <충담비>에 그가 “설산에서 성도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심희의 心印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충담은 889년에서 892년 사이에 송계선원에서 심희를 만났으며, 스승과 함께 설악으로 간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890년대 초·중반경의 설악과 명주 지역도 그렇게 평온하지

31) 김용선, 앞의 논문, 2006, 123~125쪽 ; 曹凡煥, 앞의 책, 2008, 90~91쪽.

32) 《삼국사기》 권50, 甄萱전 ; 《삼국유사》 권2, 後百濟 甄萱.

33) 김용선, 앞의 논문, 2006, 125쪽.

않았다. 이 지역은 梁吉이나 궁예 등이 등장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설악 지역도 전란의 여파가 미쳤을 것이다. <심희비>에 “설악에서 전란을 피해 운수 행각을 떠나 명주로 갔다”는 표현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스승과 헤어져 입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담이 설악을 찾은 890년대 설악 일대는 陳田寺, 億聖寺 등을 중심으로 한 가지산문 北山系의 선승들이 활동하고 있었다.³⁵⁾ 진전사에는 도의의 법을 이었음을 표방한 眞空대사(855~937)가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利觀(813~880)이 머물던 역성사에는 그의 입적 후 그 문인들이 주석하고 있었다. 심희와 충담이 설악(역성사)를 찾은 것은 이관이 慧目山의 玄晷(787~868) 문하에서 수학한 인연 때문이었을 듯하다.³⁶⁾ 현욱의 문하에서 수학한 이관은 심희의 사형뻘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진공대사는 심희가 김해에서 봉림산문을 개창하자 김해를 찾아 그곳에서 주석키도 한다. 이로 보아, 심희-충담 등은 진전사·역성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진공·이관 등 가지산문의 북산계 선승들과 긴밀하였다.

충담은 890년 중·후반경 설악 지역의 혼란을 피해 중국으로 입당하였다. 이는 찬유가 892년 송계선원의 심희를 찾아 유학할 것을 허락 받는 과정과 유사하다. 찬유도 당시의 어수선한 국내정세로 입당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³⁷⁾ 하지만, 심희는 중국에 유학할 필요가

34) 李仁在, 앞의 논문, 2003, 306~311쪽.

35) 최근 도의 문하의 진전사·역성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승들을 가지산문 北山계(정동락, 앞의 논문, 2009, 13~14쪽), 雪嶽山門(曹凡煥, 앞의 논문, 2009), 億聖寺門(權惠永, <新羅 道義禪師의 初期 法系와 億聖寺> 《新羅史學報》 16, 2009, 208~209쪽) 등으로 파악하여 체정의 보림사 계열과 구분하기도 한다.

36) 曹凡煥, 앞의 논문, 2008, 22~24쪽 ; 權惠永, 앞의 논문, 2009, 207~208쪽.

없다고 하여 입당유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찬유의 입당에 대해서 마뜩잖아 했으며, 찬유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입당 허락을 얻어낸 것 같다고 한다.³⁸⁾ 그렇다면 충담의 입당도 이와 유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심희는 충담이 입당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충담은 중국의 선종 불교계를 널리 경험코자 원했으며, 혼란한 국내 사정 등이 작용하여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

충담은 배편을 이용해 중국에 도착해 곧바로 雲蓋선우의 圓淨志元을 찾아간다. 유학 전 이미 중국 선종계의 사정을 다소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1. 근래에 江西(마조도일)의 선풍이 海裔(신라)로 전해졌으니, 또한 鳳林(진경심희)이 있어 章敬(장경회휘)의 가문이다. 그러니 증손인 우리 대사(충담)야 말로 우리의 도(吾道)를 다시 선양할 인물이라 하겠다(<충담비>).

2. 중국에 도달하였다. 이 때 지름길로 雲蓋禪宇에 올라 淨圓대사에게 경건한 예를 올렸다. 대사는 구름 덮인 산속에 살면서 石霜(慶諸)의 심인을 이었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와서 나를 계단으로 삼은 것은 더 나은 보금자리로 옮기고자 함을 미리 드러낸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寶所를 떠나지 않았다(<충담비>).

충담을 만난 지원은 자신을 계단으로 삼아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을 생각해 보라는 선문답과 함께 인가해주었다. 충담은 6祖慧能에서 이어진 馬祖道一 - 圓鑑玄昱 - 眞鏡審希의 법맥과 石頭希遷 - 藥山惟

37) 김용선, 앞의 논문, 2006, 124쪽.

38) 이것이 훗날 심희와 찬유가 서로 정치적 노선을 달리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용선, 앞의 논문, 2006, 132쪽). 하지만, 찬유나 충담이 심희와 입당유학에 대해 견해 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지향의 차이나 갈등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儼-石霜慶諸-雲蓋志元의 법계를 동시에 잇게 되었다. 나말려초의 입당 선승들은 법계가 두 계통으로 나뉜다. 신라말에 입당한 선승들은 주로 남악-마조계의 선풍을 잇고 있는데 비해, 고려 초가 되면서 주로 청원-석두계의 법맥을 전해오고 있었다.³⁹⁾ 충담은 중국 남종선의 2대 계통인 마조계와 석두계를 함께 계승하였다.

IV. 태조왕건의 결연과 興法寺 주석

충담은 중국에서 지원의 법을 이은 후 보림행을 떠나 자신의 경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참선수행과 함께 선종불교의 성지들을 참배하고 선지식을 참알하였다. 이후 918년 6월에 20여 년 간의 유학생 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태조왕건이 弓齋를 몰아내고 즉위한 바로 그 즈음이었다.

G. 天祐 15년(918, 경명왕 2) 6월 (결락) 도착하였다. □□學을 배우고자 모두 의심나는 바를 묻다가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중에 사김은 더욱 깊어졌다. 여러 달 동안 禪을 논하고 한해가 되도록 法에 대해 물었다. 彌天(道安)이 입을 벌리고 離日(離婆哆)이 입술을 놀리듯 하여, 言路의 단서를 헤아릴 수 있었고, 言□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충담비>).

충담이 귀국한 경로는 비문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당시 구법승은 무주의 會津(형미, 905; 경유, 908)과 昇平(여엄, 909), 전주 臨陂郡(경

39) 崔柄憲, 앞의 논문, 1972, 100쪽;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487~503쪽; 추만호, 앞의 책, 1992, 59~100쪽;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민족사, 1995, 51~52쪽.

보, 921)과 喜安縣(공양, 924), 강주 德安浦(찬유, 921) 등 한반도 서남부의 항구인 南路를 통해 귀국하였다.⁴⁰⁾ 특히, 921년 7월 찬유는 강주 덕안포로 귀국하여 곧바로 봉림사로 심희를 찾아갔다. 충담도 귀국 후 곧바로 심희에게 간 것으로 보아 찬유와 비슷한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로 온 그는 봉림사에서 심희를 대신해 문인들을 지도했다.

그런데 심희는 충담의 귀국 직후인 918년(경명왕 2) 10월 경명왕의 초청을 받는다. 이 때 심희는 “비록 深山에 있더라도 왕의 땅에 속하고, 더구나 부축이 있어 왕의 신하로서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경주로 향하였다. 12월에는 궁궐에서 ‘理國安民之術’을 설하였다.⁴¹⁾ 경명왕은 심희에게 감사의 뜻으로 法膺대사라는 칭호를 내리고, 아마 국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심희는 여전히 신라왕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심희와 동행한 문인들은 景質 선사와 洪俊(882~939) 등 80여인이었다. 충담의 동행 여부가 궁금한데 <충담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이후 그의 행적으로 보아 동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900년대 초반 김해지역은 金(蘇)律熙 형제의 후원으로 봉림산문이 개창된 후, 다수의 선승들이 머문 선종의 요람이었다.⁴³⁾ 심희는 900년 봉림산문을 개창 후 입적하는 923년까지 충담과 찬유, 홍준 등 500여 명을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굴산문의 행적은 907~915년 사이, 수미산문의 이엄은 911~915년(923년?)의 4년간(또는 12년간) 勝光山에 머물렀다. 가지산문의 眞空대사도 900년대 초반에서 920년대 초반까지

40) 權惠永,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30~31쪽.

41) 曹凡煥, 앞의 책, 2008, 97~101쪽.

42)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96쪽.

43) 최병현, 앞의 논문, 1978, 416~431쪽 ; 구산우, 앞의 논문, 2008, 184~186쪽.

김해에 주석하였다.⁴⁴⁾ 이들은 심희와 교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918년 6월 김해에 온 충담은 당시 김해에 머물던 진공대사나 이엄 등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충담은 봉림사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H. (전쟁이 일어나) (결락) 하는 빛을 (결락) 甲兵의 기색을 근심스럽게 보았다. 마침내 김해를 떠나 멀리 玉京(개경)으로 갔다. 가는 길이 더디고 더뎠지만 어느덧 경계에 들어왔으니... 內殿으로 받들어 모시고 곧 (결락) 거둬 象王(부처)의 말씀을 토로하니, 거둬 자리를 피하며 공손히 제자의 의례를 삼가 갖추었으며, 일일이 큰 띠(書紳)에 기록하면서 王師의 예로 대하였다. 다음날 옮기기를 청하니 (결락) 청정한 오두막에 (결락) 영원히 (결락) 대사는 멀리 임금의 청에 따라서 다시 경기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옥당을 따로 장식하고 僧榻에 오르게 하였다. 대사에게 물었다. “과인은 어려서부터 武에 전념하느라 학문을 정밀히 하지 못하여 先王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 ”(<충담비>).

김해에서 머물던 충담은 “甲兵의 기색을 근심”하여 개경으로 향하였다. 즉, 그는 김해지역이 전란 상황에 빠져들게 되자 그곳을 떠난 것이다. 충담이 개경으로 떠난 시기는 고려가 건국된 경명왕대 전후,⁴⁵⁾ 혹은 920년경,⁴⁶⁾ 924~934년 사이⁴⁷⁾로 보기도 한다. 충담과 비슷한 시기 김해에 머문 진공대사도 “霸圖가 동남쪽에 두루 펼쳐서”, 이엄은 “賊徒의 소굴과 접한 때문”에 김해를 떠난 것으로 전한다.⁴⁸⁾ 여기서 언급된 ‘패도·적도·감병’ 등은 후백제 견훤세력을 의미하는

44)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15쪽.

45) 최병현, 앞의 논문, 1978, 423쪽.

46) 김영미, 앞의 논문, 2005, 71쪽 주 51).

47) 이인재, 앞의 논문, 2001, 212쪽 및 217쪽.

48)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16쪽.

것으로 보인다.

920년 10월 견훤의 후백제군은 大良(합천)을 탈취하고, 進禮郡으로 진격하였다. 사정이 급박해 진 신라의 요청에 고려 태조가 원병을 보내 구원해 주었다.⁴⁹⁾ 또 그 3년 뒤인 923년에는 충담의 스승인 심희가 입적한다. 그런데 심희의 입적 후 장례과정이나 부도탑비의 건립과정에서 충담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담은 심희의 입적 전에 개경으로 떠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충담이 김해를 떠난 것은 920년에서 923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해를 떠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던 ‘甲兵’은 아무래도 920년 후백제의 침공으로 보이므로 920년 10월 이후 개경으로 간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특히, 그가 왕사로 임명된 때가 921년경으로 보이므로 김해를 떠난 것은 920년 말이나 921년 초 즈음이었을 듯하다.

충담의 개경행이 태조의 초빙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선택인지 분명하지 않다. <충담비>에는 “가는 길이 더디고 더뎠지만 어느덧 경계에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 김해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은 해로와 육로인데, 충담은 더디었다고 하므로 육로로 간 듯하다. 이로 보아 충담의 개경행은 태조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⁵⁰⁾ 그가 개경에 도착하자 태조는 내전으로 모셨다. 충담은 태조를 만나 “象王(부처)의 말씀”을 토로하였고, 태조는 “공손히 제자의 의례를 갖추고 王師의 예”로 대하였다. 고려 건국 후 태조에 의해 왕사로 임명된 인물은 慶猷(871~921)와 충담 두 사람이 확인된다. 왕사나 국사의 임명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⁵¹⁾ 경유가 921년(태

49) 《삼국사기》 권12, 경명왕 4년 11월 ; 《고려사》 권1, 태조 3년 동 10월.

50) 충담과 태조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김해에서 나주로 가서 서남해를 통해 해로를 이용해 빠르게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51) 박윤진은 “경유와 충담은 태조의 왕사인 점이 분명하지만 책봉시기가 기록되지 않아 중복되어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朴胤珍, 《高麗

조 4) 3월에 입적하므로 충담의 왕사 책봉은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⁵²⁾ 그렇다면 충담의 왕사 임명 시기는 921년 3월 경유 입적 이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조가 충담을 왕사로 임명하고 우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법상종을 익히고 계율을 중시했다거나,⁵³⁾ 불교교단을 포섭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지적된다.⁵⁴⁾ 더불어 태조는 심희가 신라의 국사로 책봉된 것을 염두에 두고 충담을 내세웠던 듯하다. 즉, 신라에 대응하여 선종 불교계를 포용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충담을 왕사로 임명했던 것이다. 또 그를 통해 봉림산문 세력들을 포용하고 충담을 중심으로 재편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담이 개경으로 온 것은 그의 현실인식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특히, 견훤의 김해 침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듯하다. 침략군인 후백제, 자신의 영토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신라, 원병을 파견한 고려가 선명하게 대비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와 왕건에 대해 호감을 가졌을 법하다.

왕사로 임명된 뒤 충담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개경 인근의 사원에 머물렀던 듯하다. 하지만 얼마 후 왕건은 다시 그를 왕실로 초빙하였다. 그리고 “과인은 어려서부터 武에 전념하느라 학문을 정밀히 하지 못하여 先王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충담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당시는 태조가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지 얼마 되

時代 王師·國師 研究》, 景仁文化社, 2006, 44~45쪽).

52) 남동신은 “기왕의 왕사였던 경유가 입적한 921년 이후”로 파악하였다(남동신, 앞의 논문, 2005, 99쪽).

53) 申虎澈, <弓裔의 政治의 性格 - 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 《韓國學報》 29, 1982, 52쪽.

54) 고려 태조의 불교 정책에 대해서는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敎政策> 《大丘史學》 22, 1983 참조.

지 않은 시기였다. 그 때문에 궁예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태조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듯하다. 이에 태조는 重幣卑辭 정책을 통해 친궁예파 세력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태조는 충담에게 즉위 직후의 정치적 안정과 호족세력의 포용방안, 향후 불교정책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 충담은 고려국가의 선종 불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법하다. 또, 태조의 즉위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친궁예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에 태조는 前秦王 苻堅과 道安, 漢世宗과 葉摩騰, 梁武帝와 寶誌의 만남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향화의 공을 닦고 자자손손 만들겠다면서 불교를 국교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태조는 특별히 원주의 興法禪院을 중건하고 머물게 하였다. 충담은 921년 3월에서 멀지 않은 시기인 922년 경⁵⁶⁾에서 940년 입적시까지 흥법사에 머물렀다.⁵⁷⁾

- I. 다시 興法禪院을 일으켜 (결락) 대사로 하여금 주지케 하니 이곳이 吉祥의 땅임을 [알 수 있었고], 지나간 아름다움을 상론하니 延福의 터임을 재차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마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마음에 후회됨이 없었다. 마침내 이 곳에 선의 빗장(禪扃)을 활짝 열었다. 오는 자는 구름 같고 배우려는 사람은 안개와

55) 이인재는 이 때 충담이 심희와 마찬가지로 ‘理國安民之術’을 올렸을 것이라고 한다(이인재, 앞의 논문, 2001, 212쪽).

56) 충담이 흥법사에 주석한 것은 개경 인근에 머문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대략 922년경이 아닌가 한다.

57) 이인재는 “원주 흥법사에 진공대사가 머문 시기는 대략 최대 924년에서 940년 입적할 때까지 16년간이나 혹은 934년부터 6년간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이인재, 앞의 논문, 2001, 217쪽).

같았다. 옛 계율(琉璃)을 따르자, (결락) 나라에 (결락) 법을 일으키는 설법을 들었다. 대사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精舍를 세우기도 하였지만, 문도들이 이를 물리쳤다(<충담비>).

대조가 특별히 충담을 원주 흥법사로 주석케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원주지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⁵⁸⁾ 원주는 822년 김헌창의 난 때 가담하지 않고 擧兵自守하였다. 하지만 9세기 후반 지방세력들의 거점이 되면서 점차 신라로부터 이탈해 간다. 道憲은 경문왕의 누이인 端儀長翁主의 초빙으로 864~879년 사이 약 15년간 賢溪山 安樂寺에 주석하였다. 그러다가 879~881년 사이 잠시 문경의 鳳巖寺에 머물다가 다시 안락사로 돌아와 882년 입적하였다. 신라왕실에서는 도헌을 통해 원주지역의 민심 이탈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880년대 후반이 되면 상황은 신라왕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된다. <결중비>에 따르면 886년 경 영월 獅子山의 興寧寺가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원주지역에서 농민항쟁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889년(진성여왕 3)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발발하자 원주의 梁吉이 翎原山城을 중심으로 독립하였다.⁵⁹⁾ 世達寺의 승려였던 궁예는 891년 경 竹州 箕萱에게 투탁하였다가, 양길에게 의지한다. 892년 궁예는 雉岳山 石南寺에 머물면서 원주 동쪽의 酒泉·奈城·鬱烏·御珍 등을 공략하고, 894년 명주지역을 점령하였다.⁶⁰⁾ 이후 궁예는 899년경 양길을 깨트리고, 901년 고려를 건국해 본격적인 후삼국시대가 전개

58) 李仁在, 앞의 논문, 2003, 305~319쪽 ; 김혜완, 앞의 논문, 2004, 9~16쪽.

59) 辛鍾遠, <雉岳山 石南寺址의 推定과 現存民俗> 《정신문화연구》 54, 1994, 9~10쪽.

60) 金明鎭,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82~84쪽.

된다.⁶¹⁾

궁예는 영월의 세달사에서 善宗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생활을 했고, 석남사에 군대를 주둔했다. 그로보아 원주·영월지역의 불교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⁶²⁾ 901년 이후 원주는 궁예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으며, 한동안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⁶³⁾ 그런데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원주의 호족세력들은 새로운 정치상황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했다. 원주 원씨인 元克猷와 같은 인물은 태조 즉위 이후 이 지역이 고려의 관할 하에 있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三韓功臣이 되었다.⁶⁴⁾ 하지만, 태조에게 비협조적인 세력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궁예의 세력기반이 된 원주 인근의 영월과 명주 등은 왕건에게 불복종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⁶⁵⁾

태조는 즉위 직후 蘇判 宗備과 內軍將軍 狄鉄 등을 주살하였다.⁶⁶⁾ 종간은 젊은 시절을 궁예와 함께한 승려 출신으로 보이며, 이들은 영월을 세력기반으로 삼은 인물들로 생각된다.⁶⁷⁾ 왕건 즉위 이후 세달사·석남사, 영월지역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 명주의 金順式도 여전히 독립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친궁예적인 입장을 견지한 호족세력이었다.⁶⁸⁾ 왕건은 그를 포섭하기

61) 李基東,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 內亂期 신라 朝廷의 내부사정 -> 《新羅文化》 27, 2006, 12~13쪽;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해안, 2007, 56~73쪽.

62) 궁예와 세달사, 석남사 등의 불교사원과의 관계는 申虎澈, 앞의 논문, 1982, 37~40쪽 참조.

63) 李仁在, 앞의 논문, 2003, 311~312쪽.

64) 李仁在, 앞의 논문, 2003, 314~316쪽; 이인재, 앞의 논문, 2006, 82~84쪽.

65)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70~89쪽.

66)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

67) 鄭淸柱, 앞의 책, 1996, 75~76쪽.

內院의 승려이면서 순식의 부친이었던 許越을 보내 설득하였다. 허월은 굴산문 계통의 승려로 궁예를 지지하였으나,⁶⁹⁾ 왕건이 직위한 후에는 왕건에게 협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순식은 922년 7월 장자 守元을 보내고, 927년 8월 長命을 보내 숙위케 하였으며, 928년 정월에 자신이 직접 입조하였다.⁷⁰⁾ 이처럼 태조는 즉위 후 종간과 순식 등 친궁예 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강경탄압과 유화적 회유를 시도하고 있었다.⁷¹⁾ 이 과정에서 영월과 명주 인근에 위치하면서, 개경에서 그곳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원주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원주는 중부지방에서 개경으로 통하는 남한강변의 요충지였다.⁷²⁾ 이 곳은 왕건의 즉위 이후에도 고려에 귀속되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왕건은 922년경 흥법사를 중수하고 충담을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듯하다. 흥법사에 주석한 충담은 철저한 계율을 강조하면서 산문을 운영해 나갔다. 이에 “오는 자는 구름 같고 배우려는 사람은 안개와 같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번성하였다. 특히, 충담은 흥법사에서 친왕건세력들은 결집시켜 나갔을 것이다. 그 중에는 940년 <충담비>를 건립할 때 참여한 원주의 上大等 信希 大等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담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충담과 문인들이 모두 물리쳤다고 한다. 이들은 아마도 궁예와 연결

68) 정청주, 앞의 책, 78~80쪽 ; 김용선, 앞의 논문, 2006, 126쪽 ; 조인성, 앞의 책, 2007, 283쪽.

69) 조인성, 앞의 책, 2007, 59~64쪽.

70) 《고려사》 권1, 태조 5년 7월, 태조 11년 정월 및 권92, 王順式전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0년 8월.

71) 丁善溶, <高麗 太祖의 對新羅政策 樹立과 그 性格 - 신라 景明王과의 교섭 배경을 중심으로 - >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154~155쪽.

72) 김혜완, 앞의 논문, 2008, 278쪽.

된 반왕건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흥법사 인근의 상황을 英俊(932~1023)의 출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영준은 부모는 京山府 출신인데 난을 피해 흥법사에 우거하다가 932년 그를 낳았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울어 인근의 적도들(緣林·靑犢)이 들을까 염려하여 나무숲에 버렸다고 한다.⁷³⁾ <영준비>에 등장하는 연림과 청독 등의 적도들은 아마도 반란농민들과 고려에 귀속되지 않은 세력들이었을 법하다.

또, 충담에게 반대하던 세력들은 “곳곳에 精舍를 세웠다”고 한다. 그 속에는 궁예가 머물렀던 세달사나 석남사 등 사원세력들도 포함되었을 듯하다. 충담은 흥법사에 머물면서 친궁예세력들은 물론 반란농민세력들을 교화시켜 나갔다. 즉, 자신의 교화력과 문인 및 단월세력의 물리력을 기반으로 반왕건적인 성향의 (불교)세력들을 친고려적으로 유도하거나, 혹은 진압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충담은 원주지역의 사상계는 물론 정치·사회세력을 왕건에게로 귀일시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그와 더불어 봉림산문 역시 왕사였던 충담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이 충담을 왕사로 임명하고 흥법사로 주지시킨 것은 이러한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⁷⁴⁾ 그리고 충담과 그의 문도, 단월세력들의 활동으로 그 기대는 충족되었다.

73) 許興植, <靈巖寺 寂然國師碑>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612~616쪽.

74) 김혜완은 왕건이 남한강 유역에 선사들을 주석시킨 것은 “선사를 통한 지방사회의 간접적인 통제라는 일반적 이유 이외에 이들 지역이 자신이 궁예의 부하로서 기반을 다진 곳이라는 친근성, 경북지역의 건훤과의 대결 준비를 위한 남한강 유역의 불교계의 확보, 남중국의 고승들에게 유학한 경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김혜완, 앞의 논문, 2008, 278쪽).

홍법사에 머물던 충담은 936년 후삼국 통일을 맞이하였다. 이에 태조에게 표문을 올려 통일을 치하하였다.

J. 우리나라는 三韓이 서로 맞버티어 피차간에 진위 여부를 모르다가 一國이 응비하여 홀연히 전쟁의 우열이 가려졌다. … 대사는 表文으로 아뢰었다. “전하는 정기가 四乳(주 문왕)와 같고 눈이 雙瞳(순임금)만큼 빛납니다. … ” “대사께서 이제 樂土를 마다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자 한 두루마리(一軸之文)의 글월을 높이 날려 九重의 대궐로 보내왔습니다. … 맹세컨대 그 興法禪院은 비록 오래된 절이지만 그래도 좋은 지역(仁方)에 있으니 스님 생전에 길이 거처할 곳으로 하십시오.”(<충담비> 음기).

충담은 태조를 周 文王과 舜 임금에 비유하고 있다. 즉, 왕건은 주 문왕이 大仁으로서 백성의 신임을 얻어 천하가 귀의하였고, 순임금이 법을 이루고 문장을 이룬 것과 같은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군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후삼국 통일을 높이 평가하고 그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더불어 통일 군주인 태조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고, 태조 중심의 정치·사회질서의 재편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였다.⁷⁵⁾ 이에 태조는 충담이 머물던 홍법사를 길이 거처할 곳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 홍법사를 국가적인 비보사원으로 추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담의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홍법사에서 법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우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충담은 태조의 후삼국 통일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여주었다. 이에 태조는 충담에게 종신토록 홍법사에 주석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5) 최인표는 “충담이 태조가 王者로서의 덕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태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확립과 정치적 권위를 강화시켰다”고 한다(최인표, 앞의 책, 2007, 159쪽).

V. 태조왕건의 <충담비> 찬술과 그 의미

흥법사에서 머물던 충담은 940년 7월에 문인들에게 ‘萬法皆空 一心爲本’이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한다. 歲壽는 72세요, 僧臘은 51세였다. 門徒弟子는 廣休·惠泰(恭)長老, 通玄上座 등 500여인이다. 그의 입적소식을 들은 태조는 장례와 부도 건립을 지원하였고, 특별히 자신이 직접 비문을 찬술하여 흥법사에 세운다. 그만큼 충담을 각별히 대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담의 입적과 탑비건립, 태조의 비문찬술은 <<고려사>>에도 기록되었다. 이는 고려초에 국사나 왕사로 임명된 인물 중 최초의 사례로 그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K-1. 天福 5년(940, 태조 23) 7월 18일 새벽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萬法이 모두 쉰이니 나는 이제 가련다. 一心이 근본이니 너희들은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얼굴을 평상시와 같이한 채 寂然히 앉아서 돌아가시니, 俗年은 72세요 僧臘은 51세였다. … 시호를 추증하여 真空大師라 하고 탑명을 □□□□탑이라 하였다(<충담비>).
2. 가을 7월에 王師 忠湛이 입적하였다. 그를 위하여 원주 靈鳳山 興法寺에 부도탑을 세우고 왕이 친히 碑文을 지었다(<<고려사>> 권1, 태조 23년).

<충담비>의 건립은 스승인 심희의 그것과 대비된다. 즉, <심희비>는 경명왕이 비문을 직접 찬술하여 신라왕실의 지원으로 봉림사에 건립되었다. 반면 <충담비>는 후삼국 통일 후 태조왕건이 찬술하여 고려왕실에서 지원하여 건립된다.

심희는 923년 4월 봉림사에서 입적하였다. 경명왕은 장례를 지원하고 부도탑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문을 찬술하여 탑

비를 924년 4월에 봉림사에 건립하였다. 전액은 崔仁浟(崔彦僑)이 쓰고, 글씨는 문하승 幸期가 썼으며, 性林이 새겼다. <심희비>의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전법제자인 景質선사 등 봉림사의 승려들이었다. 그 후 심희비는 癸巳년 윤7월에 재건립 되었는데, 933년(경순왕 7)⁷⁶⁾ 혹은 1653년⁷⁷⁾로 보기도 한다. 만약 933년 중건된 것이라면, 신라왕실의 지원이 있었을 듯하다. 이처럼 924년 봉림사에 <심희비>를 건립했던 심희의 문인들은 신라왕실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기울어져가는 신라왕실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충담은 920년 경 봉림사를 떠나 개경으로 갔다. 그 후 봉림사는 물론 신라왕실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태조왕건은 그를 왕사로 임명하고 원주 흥법사에 머물도록 하였다. 940년 충담이 입적하자 태조가 직접 비문을 찬하고, 부도탑과 탑비를 건립하였다. 태조는 충담의 스승인 심희의 비가 경명왕이 직접 찬하여 건립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담비>의 찬술은 어쩌면 친신라적 성향을 지닌 봉림사계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최근 봉림산문 선승들의 계보 인식을 정리한 연구에 의하면, 충담은 장경회회를 내세우면서 현욱 보다는 심희를 봉림산문의 개창조로서 강조하려고 했다고 한다.⁷⁸⁾ <충담비>가 찬술될 당시 흥법사의 문인들은 충담이 봉림산문의 심희를 이은 선승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76) <심희비>의 음기에 ‘□巳年 閏七月 日 重豎北刊’이라 하였는데, 이를 癸巳로 보고 933년에 중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李智冠, 앞의 책(신라편), 1993, 364쪽, 주136 ; 배상현, <眞鏡 審希의 活動과 鳳林山門> 《史學研究》 74, 2004, 103쪽).

77) 정선종,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184쪽.

78) 김영미, 앞의 논문, 2005, 72~77쪽.

가 있었던 것이다. 충담은 봉림사를 떠나 흥법사에서 입적했고, 또 봉림사에는 심희를 이은 경질선사 등이 스승의 계승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흥법사에 머물던 충담의 문인들은 충담이 심희를 이은 봉림산문의 정통임을 주장했던 듯하다. 또, 그것이 태조에게 받아들여져 비문의 법계기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담은 920년대 초반 왕건과 결연하고 있었다. 그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를 택하였고, 왕건을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파악했다. 이점은 심희를 이은 찬유·홍준 등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⁷⁹⁾ 즉, 920년대 초 심희의 입적 이후 봉림산문은 단월세력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친신라적인 노선을 견지한 봉림사의 경질선사 계열이고, 또 하나는 왕건과 연결되면서 친고려적인 입장이었던 충담 등의 선승들이 있었다. 특히 후자는 심희의 법을 이었지만, 모두 봉림사를 떠난 선승들이었다. 그 때문에 후삼국 통일이후 고려왕실과 연결된 후자들은 부각된 반면 경질 등 봉림사 계통은 쇠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940년 <충담비>의 건립에는 문인들 뿐 아니라 원주지역의 재향세력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충담비> 음기의 내용을 살펴보자.⁸⁰⁾

L. 大師在家弟子 (결락) 州官

三綱典：通玄上座 廣休長老 惠恭長老

鄉 職：郎 中：旻會奈末 金舜奈末

侍 郎：興林大奈末 秀英大奈末

上大等：信希大等

79) 심희 입적 후 봉림산문은 景質선사에게 계승되었으나, 봉림사가 김해에 있으므로 태조의 입장에서는 경질선사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찍 김해를 떠난 충담(920년경), 원종찬유(924년), 자적홍준(934년) 등의 봉림산문 승려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김영미, 앞의 논문, 2005, 70~71쪽).

80) 이인재, 앞의 논문, 2006, 67쪽과 71쪽의 <표 3> 참조.

<충담비>의 건립에 참여한 승려로는 통현상좌, 광휴장로, 혜공장로 등 3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삼강전의 직임이 밝혀져 있지 않고 上座, 長老 등의 승직만을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雲門寺 삼강전은 主人 寶壤和尚, 院主 玄會長老, 貞座 玄兩上座, 直歲 信元禪師 등이었다.⁸¹⁾ 또, 944년 건립된 <절중비>의 삼강전으로 院主 希郎長老, 典座 昕曉上座 등이 기록되어 있다.⁸²⁾ 이해보아 통현은 직임이 전좌, 광휴와 혜공은 원주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강전은 나말려초에 선종사원에 설치된 자치기구로, 그 직임은 원주, 維那, 전좌, 직세 등이었다.⁸³⁾ 따라서 통현 등은 <충담비> 건립에 참여한 흥법사의 삼강전의 직임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⁸⁴⁾

다음으로 고려초 원주 지역의 향직으로 郎中(민회·김순나말), 侍郎(홍림·수영대나말), 上大等(신희)의 직역을 지닌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983년(성종 2) 향리직의 개편 이전의 직제였다. 따라서 이들은 940년 경 원주의 읍사에 보임된 관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담비>에는 上(堂)大登 - 侍郎(大等?) - 郎中의 직임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희 등은 당시 원주지역 읍사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충담비>의 건립에는 흥법사 삼강전과 함께 원주지역의 읍사(州司) 조직이 참여하고 있었다. 즉, <충담비>는 위로는 국왕을 비롯하여 원주의 읍사와 흥법사의 사원조직이 참여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점은 940년 경 고려국가의 지방통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왕건은 불교사원을 통해 지방사회를 진무통제하려고 했으며, 흥법사는 국가의 대민통치에 일

81) 《삼국유사》 권4, 寶壤梨木.

82) 李智冠, <寧月 興寧寺 澄曉大師 寶印塔碑文> 앞의 책(高麗篇1), 1994 ; 남동신, <홍녕사 징효대사 보인담비> 앞의 책, 한국역사연구회편, 1996.

83) 金在應, <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 《震檀學報》 77, 1994, 70쪽.

84) 이인재, 앞의 논문, 2006, 67~68쪽.

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담이 입적하는 940년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보자.

- M. ①봄 3월에 州府郡縣의 이름을 개정하였다. ②가을 7월에 王師 忠湛이 입적하였다. 그를 위하여 원주 靈鳳山 興法寺에 부도탑을 세우고 왕이 친히 碑文을 지었다. ③겨울 12월에 開泰寺가 완공되었다. 落成華嚴法會를 열고 왕이 친히 疏文을 지었다. ④이해에 新興寺를 중수하고 功臣堂을 설치하여 三韓功臣을 동서 벽에 그려 붙이고 하루 밤낮동안 無遮大會를 열었는데 이것을 매년 상례로 삼게 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23년).

940년 3월 태조는 전국의 군현조직인 주부군현의 명호를 개정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원주도 이때 北原府에서 原州로 바뀌었다.⁸⁵⁾ 또, 新興寺를 중수해 功臣堂을 설치하고 三韓功臣을 책정하였다. 이처럼 후삼국 통일 후 태조는 전국적인 지방통치체제 정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 지방세력의 재편성을 위해 각 고을의 土姓을 分定하고, 그들에게 本貫을 사여하는 동시에 향리직을 개편하였다. 더불어 통일을 지지 협조한 휘하의 관인을 비롯해 신라·후백제의 귀부세력과 재지호족을 포함하는 삼한공신을 책정하였다. 공신들의 물적 기반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役分田도 제정하였다.⁸⁶⁾ 이처럼 940년 충담이 입적하는 시기는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태조는 7월에 <충담비>를 찬술하고, 12월에 開泰寺 낙성 <화엄법회소문>을 親製하였다. 당시 태조의 불교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개경에 10大寺를 위시한 26여개의 사원을 창건하여 개경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고, 고려 건국을 지지 협찬

85) 《고려사》 권56, 地理1 陽廣道 原州.

86) 李樹健, 앞의 책, 1984, 60~69쪽; 金昌謙, <高麗 太祖代 姓貫 賜與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2009, 58~59쪽.

한 지방사원들을 추인·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신라말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나갔던 선종세력을 포섭하고, 화엄종을 위시한 교종세력들을 배려하여 종파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였다.⁸⁷⁾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흥법사의 <충담비>(선종) 찬술과 개태사 창건 및 <화엄법회소문>(화엄종)의 친제였다.

태조는 문무를 겸비한 창업지주로 치국경륜을 두루 갖춘 군주였다. 그는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936년 11월 관료들이 정치에 임하면서 경계해야 할 내용을 담은 《政誠》 1권과 誠百寮書 8편을 지어 반포하였다.⁸⁸⁾ 그리고 940년에는 <충담비>와 <화엄법회소문>을 찬술했다. 그리고 943년 4월 임종을 앞둔 시점에는 大匡 朴述希를 불러 訓要十條를 남겼다.⁸⁹⁾ 훈요십조는 태조가 자신의 뒤를 이은 고려국왕들에게 국가를 운영해 나갈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大業은 반드시 諸佛의 護衛에 힘입은 바 크다. 禪敎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焚修토록 하였으니, 각각 그 業에 충실토록 하라.”로 시작하여, 불교관련 조항이 3개항이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1조에는 禪敎의 종파간 안배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훈요십조는 <충담비>(선종)와 <화엄법회소문>(교종)의 지향이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⁰⁾ 즉, 태조가 940년 두 글을 찬술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선교에 대한 인식이 종합된 것이 훈요십조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충담비> 찬술은 이

87) 韓基汶, 앞의 논문, 1983, 77~78쪽.

88) 《고려사》 권2, 태조 19년.

89)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90) 양은용은 “<화엄법회소>와 훈요십조는 용어사용이나 피력된 사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梁銀容, <高麗太祖 親製 開泰寺華嚴法會疏의 研究> 《伽山 李智冠 스님 華甲紀念 韓國佛敎文化思想史》 卷上, 1992, 820쪽).

후 고려국가의 불교정책, 즉 선종과 교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충담비>의 건립은 고려왕실, 흥법사의 사원세력, 원주지역 재향세력들의 합작품이었다. 940년 찬술된 <충담비>와 <화엄법회소문>은 선종과 화엄종에 대한 태조의 인식이 담겨 있었다. 태조의 <충담비> 찬술은 충담과 그 문인들을 우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의 선종불교에 대한 이해와 고려 불교정책의 방향이 담긴 것이기도 하였다.

VI. 맺음말

나말려초의 선승 중 국왕이 직접 비문을 찬한 경우는 審希와 忠湛 뿐이었다. 심희는 신라의 景明王이, 충담은 고려의 太祖가 비문을 찬제하였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鳳林山門의 선승으로 사제지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각 신라와 고려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이 서로 달랐다. 당시 선승들이 각자의 시대인식과 대응양상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간 봉림산문을 개창한 심희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했지만, 충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충담의 생애를 정리하고 특히 太祖王建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담(869~940)은 쇠락해 지방으로 은거한 진골출신으로, 869년(경문왕 9)년 武州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교와 도교 등에 관심을 가진 융합사상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부친이 정치적 정변에 연루되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자, 880년(헌강왕 6) 부친과 친분이 있던 長純선사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889년(진성여왕 3) 무

주 靈神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충담은 武州의 松溪禪院에서 머물던 審希(855~923)를 찾아가 수학하였다. 892년(진성여왕 6) 경 甄萱의 무주 점령으로 인한 전란을 피해 심희와 함께 雪岳으로 가서 그곳에서 心印을 전해 받았던 듯하다. 그리고 890년대 중·후반경 입당 유학하였다. 西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심희와는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충담은 石頭계인 雲蓋志元의 법을 이었다. 이로써 그는 중국 남종선의 馬祖계와 石頭계를 함께 계승하였다.

충담은 918년 6월에 귀국하여 鳳林寺의 심희를 찾았다. 그런데 918년 12월 심희는 경명왕의 초빙으로 경주로 가서 理國安民之術을 설하고 國師로 책봉되었다. 이후 봉림사에 머물던 충담은 920년 10월 견훤의 김해 침공을 피해 개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921년 3월경 태조로부터 王師에 임명되었다. 그는 심희와 달리 고려태조와 결연하였던 것이다. 태조는 심희가 신라의 국사로 책봉된 것을 염두에 두고 충담을 내세웠던 듯하다. 충담은 신라나 甄萱보다 고려와 왕건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 이점은 나말려초 동일한 산문의 스승과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선택의 지점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왕건은 원주의 興法寺를 중수하여 충담이 머물게 하였다. 원주지역은 남한강변의 요충지로 왕건 즉위 이후 친궁예세력들의 비협조로 한동안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흥법사에 주석한 충담은 자신의 교화력과 문인 및 단월세력들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반왕건적인 성향의 세력들을 친고려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로써 흥법사는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후 936년 후삼국 통일이 되자 表文을 올려 통일의 정당성과 태조 중심의 정치질서 재편에 힘을 실어주었다.

충담은 940년(태조 23) 7월 興法寺에서 입적하였다. <충담비>의

건립은 스승인 심희의 그것과 대비된다. <심희비>는 경명왕이 비문을 찬술하여 신라왕실이 건립을 지원하였다. <심희비>의 건립을 주도한 景質선사 등 봉림사의 선승들은 친신라적인 성향을 지녔다. 반면 <충담비>는 태조왕건이 직접 비문을 찬술하였다. 충담은 920년대 초반 심희의 입적 전부터 왕건과 결연하였다. 그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왕실을 택하였고, 왕건을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파악했던 것이다.

940년 <충담비>의 건립에는 흥법사의 三綱典 승려들과 원주지역의 재향세력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는 고려태조가 후삼국 통일이후 지방군현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때와 서로 맞물려 있었다. 더불어 태조의 <충담비> 찬술은 開泰寺의 <華嚴法會疏文>과 함께 고려 국가의 불교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상에서 충담의 생애를 정리하고, 특히 태조왕건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신라보다 고려를 대안으로 여겼던 그의 시대 인식, 선과 함께 교(유식과 화엄)를 포용한 융합적인 선사상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다. 추후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익진, 《韓國古代 佛敎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 권덕영,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 권덕영, <新羅 道義禪師의 初期 法系와 億聖寺> 《新羅史學報》 16, 2009.
- 김남윤,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1984.
- 김재용, <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 《震檀學報》 77, 1994.
- 김창겸, <高麗 太祖代 姓貫 賜與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2009.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영미, <나말려초 禪師들의 계보 인식> 《역사와 현실》 56, 2005.
- 김용선, <玄扈·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김혜완,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 2004.
-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 박윤진,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景仁文化社, 2006.
- 박정주,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震檀學報》 77, 1994.
- 배상원, <眞鏡 審希의 活動과 鳳林山門> 《史學研究》 74, 2004.
- 서진교, <高麗 太祖의 禪僧包攝과 任持派遣>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 출판부, 1996.
- 신종원, <雉岳山 石南寺址의 推定과 現存民俗> 《정신문화연구》 54, 1994.
- 신호철, <弓裔의 政治的 性格-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1982.
- 안영근,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1996.

- 양은용, <高麗太祖 親製 開泰寺華嚴法會疏의 研究> 《伽山 李智冠 스님 華甲紀念 韓國佛教文化思想史》 卷上, 1992.
-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이기동,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 內亂期 신라 朝廷의 內부사정 -> 《新羅文化》 27, 2006.
- 이수건,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이인재,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2001.
- 이인재,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31, 2003.
- 이인재, <고려 초기 원주 지방의 역사와 문화> 《韓國思想과 文化》 32, 2006.
- 이재범,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혜안, 2007.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伽山文庫, 1994.
- 정동락, <元寂 道義의 生涯와 禪思想>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정선용, <高麗 太祖의 對新羅政策 樹立과 그 性格 - 신라 景明王과의 교섭 배경을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정성분,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정청주, <궁예와 호족세력>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晷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4, 2008.
- 조범환,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조범환,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 조선총독부, 《朝鮮金石總覽》 上, 1919.
- 조인성, 《태봉의 궁예 정권》, 푸른역사, 2007.
- 최병현,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최병현,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신서원, 1994.
- 한기문,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大丘史學》 22, 1983.
- 한기문,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2, 1988.
-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 허홍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ABSTRACT

Choongdam(869~940)'s Life and Activities

Jung, Dong-rak

Choongdam(忠湛, 869~940) was born in Muju(武州) in 869. His father received a threat to his own safety due to involvement in a political upheaval. In 880, Choongdam became a Buddhist priest under Jangsoon(長純), who was acquainted with his father. In 889, He received Koo Jok Kyey(具足戒; religious precepts a Buddhist priest must practice) at Yongshin-temple(靈神寺) in Muju. From that time, he studied under Shimhuy(審希, 855~923), who remained at Songkyeyseonwoen(松溪禪院) in Muju. It is considered that in 892, Chungdam went to Mt. Seorak(雪岳山) with Shimhuy to avoid war due to Gyeonhwon's(甄萱) occupation of Muju and there his teacher Shimhuy demonstrated and approved his Buddhist sermon. In the middle-and late-890s he studied in Tang(唐) and succeeded to religious tradition of the Seokdoo(石頭) school Woonkyey jiweon(雲蓋志元).

Choongdam returned to his country and visited Bongrim-temple(鳳林寺) June 918, Shimhuy accepted King Kyeongmyeong's invitation to Gyeongju and he was appointed as the Most Reverend Priest December 918. After that time Choongdam remained at Borim-temple(寶林寺), and in order to avoid Gyeonhwon's invasion of Gimhae he left for Kaekyeong October 920. Choongdam was appointed as a king's teacher by Taejo Wang Geon(877~943), the founder of the Goryeo Dynasty, March 921. Contrary to Shimhuy,

Choongdam entered into a relationship with Taejo of Goryeo.

Wang Geon ordered to remodel Heungbeob-temple(興法寺) in Weonju(原州) and had Choongdam remain there. Weonju was a strategic location of South Han River, and it was not stabilized by the uncooperative pro-Gungye forces for a long time. Choongdam the head of Heungbeob-temple led anti-Wang Geon forces to pro-Goryeo ones on the basis of his educative power and strength of the forces which followed him.

Choongdam entered Nirvana at Heungbeob-temple July 940. The construction of the "Choongdam-monument(忠湛碑)" contrasts to his teacher Shimhuy's. The epitaph of the "Shimhuy-monument(審希碑)" was written, and the monument built with the support of the royal family of Shilla. Buddhist priests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himhuy-monument" had pro-Shilla propensity. However, the epitaph of the "Choongdam-monument" was written by Taejo Wang Geon, and it was constr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royal family of Goryeo. The epitaph of the "Choongdam-monument" has a great importance together with the HwaUmBeobHwoiSoMoon(華嚴法會疏文; Hwaum Buddhist memorial service writing) in that both of them presented the direction of Goryeo's Buddhist policy.

key words : from the end of Shilla to early Goryeo(羅末麗初), Bongrimsanmun(鳳林山門), Zen Buddhism(禪宗), Choongdam(忠湛), Shimhuy(審希), Wang gun(王建)

논문 투고일 : 2010. 1. 20 심사 완료일 : 2010. 3. 30 게재 확정일 : 2010. 4. 20